

정형외과학회소식

Newsletter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2025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차 장애판정 온라인 심포지엄 안내 | 2025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제44차 전공의 평가시험 시행 안내 | 2025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제32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개최 | 학회 수련실태조사 평가 문항 중 정원책정지도전문의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 The 69th Annual Congress of the KOA 2025 | 2026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 참고문헌 | 학회 회원 공지 | 2025년도 수련회원 명단 및 혜택 안내 |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의학회 2025년도 우수회원으로 선정 | 2025년 해외연수자 선발 요강 |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정형외과TV) 업로드 현황 | JKOA 공지사항 · CIOS 공지사항 | 국내학술행사 | 모집공고 | 회원동정 · 회의실 대관 안내 |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및 고액 기부자 명단 |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 동양고전산책 | 출간소식 | 각종 캠페인 안내 · 질환별 팸플렛 안내

회장 민병우 · 이사장 한승범 · 총무이사 김상민



5

2025 May vol.423

KOA 2025

The 69th Annual Congress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2025

Call for Abstracts

- Abstract Submission Deadline : ~June 8(Sun), 2025

We are profoundly honored to announce the 69th Annual KOA Congress and warmly invite you to submit your esteemed papers. This prestigious event will serve as an invaluable platform for fostering collaboration and knowledge exchange among professionals and experts in the field. The congress will feature distinguished speakers sharing their insights, along with a series of interactive workshops designed to enhance your skills and knowledge. Additionally, there will be numerous networking opportunities to connect with peers and thought leaders.

We sincerely value your participation, which is essential to the event's success. By presenting your research and findings, you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depth and quality of discussions, inspiring and motivating your fellow attendees. We are confident that your involvement will elevate the overall experience for everyone. We eagerly anticipate the privilege of welcoming you to the 69th KOA Congress in 2025 and look forward to your active participation in this enriching and collaborative event.

Key Dates

- Notification of Acceptance : July 4(Fri), 2025
- Submission Categories : Oral, Video, E-Poster
- Subspecialties : Knee, Basic Researches, Shoulder and Elbow, Fracture, Hip, Foot and Ankle, Hand, Spine, Paediatrics, Microsurgery, Tumor and Others

Pre-registration Process

▶ <https://2025.koa.or.kr>



Congress Registration Fee

Category	Physician Member (KOA members only)	Nurse / Army doctor / Researchers	Non-Member	Foreigners	KOA Senior Member (over 65 years old) 수연회원
Pre-registration By Sep 28(sun), 2025	KRW 250,000	KRW 150,000	KRW 280,000	USD200 (*Fellow in Korea USD150)	Free
On-site registration During the Congress	KRW 260,000	KRW 160,000	KRW 290,000	USD210 (*Fellow in Korea USD 160)	

Contents

2025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차 장애판정 온라인 심포지엄 안내	04
2025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제44차 전공의 평가시험 시행 안내	05
2025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제32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개최	05
학회 수련실태조사 평가 문항 중 정원책정지도전문의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06
The 69th Annual Congress of the KOA 2025	07
2026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 참고문헌	08
학회 회원 공지	09
2025년도 수연회원 명단 및 혜택 안내	09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의학회 2025년도 우수회원으로 선정	10
2025년 해외연수자 선발 요강	10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정형외과TV) 업로드 현황	11
JKOA 공지사항 · CIOS 공지사항	12
국내학술행사	13
모집공고	15
회원동정 · 회의실 대관 안내	15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및 고액 기부자 명단	16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17
동양고전산책	20
출간소식	23
각종 캠페인 안내 · 질환별 팸플렛 안내	26

정형외과학회소식

2025 May vol.423 5월호





2025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차 장애판정 온라인 심포지엄 안내

사지의 상해를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는 여러 종류의 진단서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련과정 중 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 정형외과 진단 장애 위원회에서는 진단서 작성, 특히 장애진단 관련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안을 현실적으로 개정 보완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를 2020년에 발간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한 장애 판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학회에서는 회원들이 참고하고 있는 (상해) 진단 주 수 기준 또한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여 분과별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성 손상 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하였다가 추후에 치료 비용 및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이번 심포지엄에서 다루어 보려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포지엄이 회원 여러분의 진단서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참여도를 높이고자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준비하였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진단장애위원회 위원장 이 호 승

일 자 : 2025년 6월 1일(일)

장 소 : 온라인

사전등록 마감일 : 2025년 5월 25일(일) 자정까지

등록비 : 회원 30,000원, 비회원 50,000원

연수평점 : 최대 3평점(예정)

프로그램

08:55-09:00	Opening Remark	대한정형외과학회 진단 및 장애위원회 위원장 이호승 (서울아산병원)	
	행사 소개 및 일정 안내		
09:00-10:40	Session I : 장애 평가의 기초	좌장 : 이호승(울산의대)	
09:00-09:20	장애진단서 작성의 기본 원리	울산의대	이호승
09:20-09:40	장애 판정의 기왕증 평가	순천향의대	천동일
09:40-10:00	보험사 통합약관 장애 진단서 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	영남의대	박삼국
10:00-10:20	상해진단주수의 현황 및 고찰	중앙의대	이재성
10:20-10:40	Discussion		
10:40-11:00	휴식		
11:00-12:40	Session II : 분야별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증례	좌장 : 김진혁(한일병원)	
11:00-11:20	척추	인제의대	김진환
11:20-11:40	견관절 장애 평가 적용의 실제 및 기왕증 평가	제일정형외과병원	조남수
11:40-12:00	슬관절의 동요 평가 방법	고려의대	장기모
12:00-12:20	족부	성균관의대	박세진
12:20-12:40	Discussion		
12:40	Closing Remark		



2025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제44차 전공의 평가시험 시행 안내

2025년도 전공의 평가시험은 SBT (Smart Device Based Test) 방식의 멀티미디어 시험으로 태블릿 PC를 사용하며 아래 장소에서 시험을 시행합니다.

▶ 시험 취지

- 1) 전공의 자신의 자체 실력 평가
- 2) 전공의 교육 방침 제시
- 3) 전공의 수련 계획의 표준 및 지표 설정

▶ 평가시험은 상기 시험 취지와 같이 응시자 자신의 자체 평가인 점을 인식하고 최선의 자세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결과는 비공개가 기본이며 응시자 본인의 성적과 연차별, 분야별 전체 평균 성적은 해당 수련병원 과장님께 통보합니다.

▶ 일시: 2025년 6월 7일(토), 오후 2시 ~ 4시 30분

▶ 신청서 제출 기한: 2025년 5월 5일(월)까지

▶ 시험 실시 장소: 선린인터넷고등학교(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33-4)



2025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제32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개최

존경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님들께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님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5월의 봄날이 지나가고 강렬한 햇살과 푸른 기운이 가득한 계절 6월에 제32회 정형외과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2025년 6월 15일(일) 오전 9시부터 개원의가 알아야 할 의료법 및 분쟁사례에 대한 내용의 필수평점 강의의 시작으로 골절 수술의 트렌드, 골다공증, 외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新주사치료, 수술, 외상 후 기능회복치료(비디오세션)까지 회원님들의 외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시어 최신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동료 의료진들과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명 : 2025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제32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일 자 : 2025년 6월 15일(일), 09:00~17:40

장 소 : 세종대학교컨벤션센터 지하2층 광개토관 컨벤션홀

연수평점 : 최대 6평점(필수평점 1평점 포함) 이수 가능

※필수평점은 반드시 1시간(09:10~10:10)이상 수강한 출결 기록만 인정합니다.

등록비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정형외과 전공의, 군의관	50,000원	70,000원
정형외과 전문의	80,000원	100,000원
타과 및 비회원	100,000원	120,000원

온라인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 사이트 : <https://forms.gle/W7ePi7CnFVQxQR39A>
- 사전등록 마감일 : ~2025년 6월 6일(금) 자정까지
- 등록비 납부는 온라인 사전등록을 완료하신 후 반드시 등록자 성함으로 송금해 주시고 현금영수증은 성함, 입금일, 현금영수증 발행번호를 작성하여 학회 이메일(ortho@koa.or.kr)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계좌 정보 : KB국민은행 269101-04-008077(대한정형외과학회)



학회 수련실태조사 평가 문항 중 정원책정지도 전문의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논문 점수 대상 학회지 및 배점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통합된 학회지 포함) 및 정형외과영문학회지(CiOS), SCI(E), Scopus 논문 중 원저와 종설은 2점, 증례보고는 1점을 부여하고, 관련 학회 학술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를 인정한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의 원저와 종설은 1점, 증례보고는 0.5점을 부여하고, 해당 학술지는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족부족관절,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구, 견주관절학회지), 류마티스, Osteoporosis and sarcopenia(구, 골다공증학회지), AOSM(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학회지) 학회지이다.

2)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의 원저와 종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하며, 해당 학술지는 척추신기술헌회 학회지이다.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1점을 인정한다.)

3) Scopus에 등재된 저널은 SCI(E)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하다.

Scopus 등재된 관련학회 학술지 : Asian Spine journal, JBM(구, 골대사학회지),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구, 슬관절학회지),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 Pacific Volume)

4) SCI(E) 또는 Scopus에 등재되지 않는 해외학회지의 원저와 종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한다.

5) 정원책정 지도전문의는 당해 연도 1점 또는 직전 4년에 3점 이상의 논문 점수가 되어야 인정된다.

(1) 직전 4년 논문 점수 산출 시 이미 사용하였던 논문은 중복되게 사용하지 못한다.

(2) 당해 연도란 전년도 3월 1일 ~ 해당 연도 2월 말까지를 말한다.

• 2025년도 당해연도 :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 2025년도 직전 4년 : 2021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2.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 및 대한정형외과 영문 학회지(CiOS), SCI(E)는 당해 연도 기간 내에 채택(accepted) 되거나 E-pub된 경우, 논문으로 인정한다.

3. 정형외과와 관련된 전문 서적 및 기타 학회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제1저자 또는 통신저자는 전체 점수를 주고, 나머지 저자는 주어진 배점을 논문 작성자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한다.

※ 통합 학회지의 논문 점수 인정에 관한 건

[JKOA와 통합 전 발간] 골관절종양학회지 1점

골연부조직이식학회지, 정형외과초음파학회지, 정형통증학회지, 정형외과연구학회지 0.5점

[JKOA와 통합 후 발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동일한 점수로 인정

※ 통합학회 : 대한골관절종양학회,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대한정형통증학회, 대한정형외과컴퓨터수술학회,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운동계절기세포재생의학학회

※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의 경우 통합 전 수부외과학회지와 미세수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통합 전 발간된 논문 점수] - 대한수부외과학회지 : 원저&종설 1점, 증례보고 0.5점

- 대한미세수술학회지 : 원저&종설 0.5점, 증례보고 0.25점

※ SCOPUS 등재 시점에 따른 점수 안내

- JBM(구, 골대사학회지)의 경우 2019년 SCOPUS 등재되어 2019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종설 1점, 증례보고 0.5점

-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의 경우 2018년 SCOPUS 등재되어 2018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종설 0.5점, 증례보고 0점

-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의 경우 2020년 5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종설 1점, 증례보고 0.5점

-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의 경우 2021년 2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종설 1점, 증례보고 0.5점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등재 시점에 따른 점수 안내

- AOSM(대정스포츠의학학회 통합영문학회지)의 경우 2022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종설 0.5점, 증례보고 0.25점



The 69th Annual Congress of the KOA 2025

홈페이지에서 초록 제출 방법

1. 2025년도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9차 국제학술대회 홈페이지(<https://2025.koa.or.kr/>) 접속

2. Call for abstract - Abstract Submission - 로그인 후 초록접수 진행

※ 초록 최종 제출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추후 완성논문 혹은 증보초록과 발표 슬라이드 제출은 초록 접수자 아이디로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 작성 방법

1. 모든 초록은 영문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2. [Select1] 언어구분 (영문) : 학회 때 발표하시는 언어는 영어만 가능합니다.

3. [Select2] 논문구분1 (구연, 포스터, 구연 또는 포스터, 비디오 전시)을 선택합니다. '구연 또는 포스터'란 구연 초록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포스터로 자동 전환됩니다.

4. [Select3] 논문구분2 (원저, 증례보고, 수술술기)를 선택합니다. 논문구분1에서 구연을 선택하면 원저만 선택해야 합니다. 증례보고와 수술술기는 포스터 및 비디오 전시 발표만 가능합니다.

5. [Select4] 논문 분야를 선택합니다.

6.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 순서부터는 작성해 둔 초록을 열어 필요한 부분만을 복사해 입력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7. Affiliation에는 저자의 소속기관을 입력합니다. 소속기관이 하나인 경우 숫자 1을 선택하시고, 다기관일 경우 그 수와 동일하게 숫자를 선택하시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 Authors에는 전체 저자를 입력하시고 저자 성함은 반드시 영문 full name을 입력해야 하며 이메일 주소로 모든 안내 사항을 보내드리오니 각자의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9. 초록의 본문은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Conclusion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증례 또는 수술술기(포스터)는 구분하
실 필요가 없고 '증례보고' 또는 '수술술기'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초록의 분량은 공백을 포함하여 영문 450단어 이내로 제한
합니다. MS워드나 한글 등 파일 형식에 따라 글자 수 세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약간의 오차는 인정합니다.
10. 그림과 테이블은 삽입하실 수 없습니다.
11. Conflict of Interest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서술해 주십시오. 저자들이 50만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가치를 특정 회사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제출한 초록이 이와 직, 간접적 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비 지원(금전 또는 물품),
특허료, 자문료, 주식 소유, 임직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2. 초록 접수자 및 모든 저자의 이메일, 면허번호 및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락을 위한 것이며 초
록접수 완료 및 채택 결과가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 ※ 초록 제출을 완료하시면 입력하신 메일 주소로 초록 등록 확인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발표 관련 일정

구 분	영문 구연	포스터	비디오
초록접수제한 (수련병원 대상)	초록 제출 편수는 제한이 없으나 초록 심사 시 1년차 전공의 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1저자 또는 통신 저자로 3편까지	없음
6월 8일(일)	초록 제출 마감		
7월 4일(금)	초록 채택 결과 발표		
7월 10일(목)	발표 취소 마감*		
8월 4일(월)	완성논문 또는 증보 초록 제출 마감**	없음	
9월 26일(금)	발표 슬라이드 제출	포스터 이미지 파일 업로드†	전시할 비디오 파일 제출***

- * 발표 취소 마감 이후에 발표를 취소하는 경우 차기 학술대회 발표에 제재를 받습니다.
- ** 8월 4일(월)까지 반드시 완성 논문이나 증보 초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좌장들께서 세션 진행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사전
발송되는 초록이므로 처음 제출하신 초록보다 보완된 초록 또는 완성된 논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제출 시 향후 1년간 제1저
자나 통신저자로 구연발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비디오 전시상 심사를 위해서 전시할 비디오 파일을 미리 접수하며 접수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국제학술대회 홈페이지에 포스터 파일은 반드시 9월 26일(금)까지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초록 제출 이후에는 절대 저자 정보 및 초록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 참고문헌

- ① Gray's Anatomy(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② Campbell's Operative Orthopedics(14판, 2020년 출판)
③ Rockwood & Green's Fracture(9판, 2019년)
④ Instructional Course Lecture(2023, 2024, 2025년에 발간된 대한정형외과학회 연수강좌 및 AAOS ICL)
⑤ 정형외과학(교과서, 8판, 2020년)
⑥ 대한정형외과학회지, CiOS(2024, 2025년도 발간)



학회 회원 공지

1.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님들께 중요 안내사항 등을 문자, 이메일 및 수령을 원하시는 주소로 발송하고 있으나 누락된 경우
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www.koa.or.kr)에서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를 수정 요청드리오니 로그인하시어 개인정보수정에서 회원님의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바랍니다.

* 중요 업데이트 회원 정보

- 현재 소속병원 • 우편물 수신처 • 주소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번호

* 회원정보 수정은 홈페이지(www.koa.or.kr) 로그인 후 상단의 “MY PAGE”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매월 소식지에 안내되는 회원 동정란은 회원들의 경조사는 물론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게재하는 공간
입니다. 소식 공지를 원하시는 경우 학회 이메일 ortho@koa.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학회 정기 간행물 발송 현황 안내

종류	발행 주기	발송 구분	우편 구독 비용
소식지	매월 말일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만65세 이상 회원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	유료 구독 신청 불가
국문학회지 (JKOA)	연 4회 발간 (3, 6, 9, 12월)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만65세 이상 회원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 3) 유료 구독 회원 우편발송	연 48,000원
영문학회지 (CIOS)	연 6회 격간 (2, 4, 6, 8, 10, 12월)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유료 구독 회원 및 자문위원 우편, 이메일 발송	연 48,000원

※ 유료회원은 우편발송 대상이 아닌 회원 중 우편료를 선납해 주신 회원입니다.



2025년도 수연회원 명단 및 혜택 안내

매년 회갑을 맞으신 수연회원께서는 해당연도 춘추계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해 드리오니 아래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강기훈	강덕정	강신타	강전오	강창남	강철호	고기철	고용곤	곽 철	구자웅	국희균
권민욱	권순민	권순철	김강일	김경수	김경호	김기욱	김덕련	김덕원	김도형	김도형	김동구
김문호	김민호	김병근	김성중	김성태	김성태	김연호	김영규	김영균	김영성	김영환	김영훈
김완업	김유동	김익지	김인기	김인영	김정렬	김정완	김정주	김정호	김정환	김준태	김중석
김지철	김진원	김태균	김태진	김형건	김형섭	김형식	김 환	나기준	나화엽	남기세	남우동
노재영	류의석	류지만	류철수	류청창	문기혁	문종열	문진호	박건욱	박기철	박도형	박민호
박병규	박봉근	박수안	박수현	박신우	박영주	박용범	박종웅	박종훈	박지홍	박진호	박현수
박현수	배은환	배준범	백승환	백창희	변기용	사동훈	서영석	서용호	서중배	서진환	서 현
송금영	송대화	송문복	송준영	송진현	송하현	신능철	신상열	신승준	신승호	신영갑	신영수
신진호	안상선	안승연	안익주	안치성	안형국	양문승	양승욱	양준영	엄기영	엄재동	오문형
오상훈	오서진	오피환	우영길	위윤철	유기원	유연식	윤기현	윤덕영	윤병철	윤석현	윤선용
윤태경	이건형	이동인	이상국	이상선	이상수	이상순	이상헌	이상훈	이은노	이제성	이종현
이준성	이창민	이한준	이형상	이흥구	임경수	임근식	임문섭	임영규	임창무	임창석	임화섭
장강수	장영수	장재혁	장정호	전득수	전인모	전진우	정경철	정남식	정대성	정비찬	정선욱
정연홍	정문화	정원범	정재효	정제택	정종균	정주원	정철원	조국형	조규범	조병중	조원민
조형호	주우준	채동주	최 현	최문도	최민기	최보현	최안석	최영효	최완섭	최원태	최원호
최재성	최종청	최형택	추 현	탁상보	표동철	하대호	하중오	한동수	한상석	한석구	한재범
한희석	홍규표	홍기식	홍대연	홍성준	홍영일	홍준석	홍치욱	황규택	황석영	황승수	황태성
황현철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의학회 2025년도 우수 회원으로 선정

한 해 동안 국내외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수행한 학회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대한의학회 우수회원에 대한정형외과학회가 2022년, 2023년에 이어 2025년도에도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연구 성과를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8대집행부 올림

회 장 민 병 우

이 사 장 한 승 범

총무이사 김 상 민



2025년 해외연수자 선발 요강

모집기간 : 2025년 7월 14일(월)까지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자 격	① 만 41세 이하의(2025년 7월 14일 기준) 현 직장 3년 근무 이상 근무한 자 ② 영어에 능통하여 일상 대화에 지장이 없는 자 ③ 수련병원 이상에 근무하는 자 ④ 외국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제출 서류	① 학회 해외 연수 지원서 1부 ② 교실/과의 주임교수 또는 과장 추천서 1부 ③ 연수계획서(기간, 연수대상병원, 지도 교수등 명기) 1부
3. 연수국 및 기간 보조 금액	① 학회가 인정할 만한 기관 및 학술대회(학회 연수) ② 보조금액(1인당) : 5,000,000원
4. 선발 심의 기준	① 논문 발표 ② 정형외과학회 활동 ③ 학회 기여도가 높은 사람 ④ 교실의 학회 호응도 ⑤ 선발 후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될 시는 선발을 취소함
5. 기 타	① 연수 후 귀국보고서 제출 ②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분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정형외과TV) 업로드 현황

유튜브 채널명 : 정형외과TV

URL : <https://www.youtube.com/@orthopedicstv/featured>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할 예정이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YouTube 검색창과

QR코드를 통해

정형외과TV를 만나보세요!



1	정홍근 前 이사장 인터뷰	32	석회성 건염 꼭 깨서 없애야 된다?
2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사 전격해부	33	골다공증의 위험성 골다공증성 골절 매우 위험!
3	정형외과는 어떤 경우에 갈까?	34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으면 뼈가 딱딱해져서 부러진단?
4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35	장시간 운전할 때 허리 건강 챙기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5	오십견(동결견) O/X	36	내 척추가 휘어있다고? 척추측만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이것'입니다!
6	골다공증 치료	37	허리, 관절이 아파요...현존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관절염 치료는?
7	회전근개 파열	38	설거지 할 때 허리통증 줄이는 법
8	석회성 건염	39	관절염 초기라면 주사치료 효과가 있나요? 무릎주사 효과 총정리!
9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40	반월 연골판이 찢어졌는데 수술해야 되나요? 퇴행성 파열 환자는 수술 이 관절염의 진행을 악화시킨다구요?
10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치료	41	인공관절 수술 후 관리! 인공관절 평균 수명은? 재환은? 기구를 오래 쓸 수 있는 법!
11	골다공증 약제	42	아킬레스 건을 튼튼하게! 아킬레스 건의 효과적인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법
12	급성 발목 인대 손상	43	척추를 살리는 호흡법! 속근 강화로 척추 건강지키기
13	척추 유합술	44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 꼭 보세요!
14	Biomechanics & 의료분야 AI	45	CT 검사를 했는데 또 MRI 검사를 하라고요?
15	초음파는 정형외과 의사에게	46	어깨가 아픈데 오십견인가요?
16	만성 발목 불안정증	47	5명 중 1명이 사망한다고? 노년기에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17	성장판 손상	48	CT검사를 했는데 또 MRI검사를 하라고요?
18	Wet lab	49	오십견은 50대가 되면 오는 병인가요? 팔이 안올라가는 분들은 꼭 보세요!
19	정형외과학회 기자간담회1_정홍근 前 이사장	50	허리디스크와 척추 협착증 같은 듯 다른 차이점은? 딱 정리해드립니다!
20	정형외과학회 기자간담회2_이재철 홍보위원장	51	허리 건강의 핵심! 대근육 운동으로 척추 건강지키기
21	정형외과학회 기자간담회3_한승범 前 보협위원장	52	발저림 가볍게 넘어가지 마세요! 발저림의 그 원인은?
22	정형외과학회 기자간담회 토론 및 질의응답	53	발바닥이 아프면 족저근막염인가요? 딱 정리해드립니다
23	소아 하지변형	54	어깨관절과 견갑골을 위한 어깨 근력운동! 밴드와 덤벨만 있으면 사무실에서도 가능
24	기자간담회 행사 스케치	55	★거북목, 일자목 주목★ 목 통증을 줄여주는 경추 안정화 운동
25	초음파_상지 질환	56	허리디스크와 척추 협착증 같은 듯 다른 차이점은? 딱 정리해드립니다!
26	초음파_하지, 척추 질환	57	허리 수술 후에 회복 기간,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릴까?! 실제로 허리디스크 수술받은 의사가 설명해드립니다! (추간판절제술, 유합술)
27	무릎 주사 치료	58	진짜 통풍환자인 의사가 알려드립니다! 통풍, 나도 걸릴 줄 몰랐다... 후회하기 전에 꼭 보세요!
28	무릎 통증 원인	59	이 증상이 있다면 손목터널증후군? 자가진단법 집에서 쉽게 해보세요!
29	무릎 관절 건강 지키는 운동법	60	뼈가 금만 갔는데 부러진 거라고요? 정형외과 전문가가 말하는 그릇된 오해와 상식들
30	대한정형외과학회 2024년 제68차 춘계학술대회 현장 스케치	61	금속내고정술 후 뼈가 붙으면 금속을 꼭 제거해야 하나요?
31	오십견(동결견), 치료 안하고 그냥 두면 안되나요?		

JKOA 공지사항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입니다.
2.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습니다. 영문 논문은 가급적 CIOs에 투고 부탁드립니다.
3.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허가를 받은 심사 완료된 논문은 저자 변경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4. 연구 윤리의 원칙에 저자 됨은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해야 하나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들 중에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저자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저자 수에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종례 보고에는 4명 이하(전공의 1인) 원저에는 6명 이하(전공의 2인까지) 종설에는 3인 이하 제한된 수 이상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편집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들 등록된 저자 이외에 기여한 사람은 Acknowledgement에 넣습니다. 단, 다기관 공동 연구(Multi-center study) 등 상기 규정된 저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논문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원고 투고 시 저자 고유식별 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
6.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투고한 동일한 내용의 연구물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 학회지에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 윤리규정 제1절 제3항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의 위반이므로 이런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7. 신속심사제도에 관하여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심사는 정규 심사 과정이 기본이나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기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별하여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심사제도는 선별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며 “가급적 채택”이 아닙니다.
총 60일 이내의 심사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수정 후 재투고’ 판정 후에 재투고 기간이 늦어지면 60일 이내의 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재투고 판정 시 투고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문의 자격시험 논문 기준의 사유로 신속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매년 8월 말까지만 신청을 접수받고 진행을 하며 수정 후 재투고가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된 기한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유일 경우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고 가급적 정규 심사과정을 통하여 학회지 논문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국에 전송(팩스 : 02-780-2767 또는 이메일 : ortho@koa.or.kr)하고 위원장의 타당성 승인 후 별도의 심사료 30만원을 학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속심사 시행이 심사위원의 논문 게재 허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8.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발간 일정 변경 안내
기존 6회 발간되던 대한정형외과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가 2025년부터 새로운 발간 일정에 따라 계간으로 발간됩니다. 이에 따라 학회지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독자들에게 더욱 충실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에 논문 투고를 준비하시는 연구자 및 학자분들께서는 새로운 발간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정형외과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결과를 공유하며,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정에 맞춰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논문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회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iOS 공지사항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영문 저널 CiOS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가 SCI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논문 투고와 적극적인 논문 인용으로 힘써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편집진은 앞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로 SCI 등재 유지는 물론 명실상부한 정형외과 대표 국제 저널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문학회지 편집위원장 김한수 배상

1. CIOs는 현재 SCI, SCOPUS, PUBMED, MEDLINE,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된 학술지입니다.
2. 원고 투고 시 저자식별번호 ORCID No.를 반드시 표기하시고 연구비 지원 기관이 있는 경우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SCI 논문은 2019년 3월호(11권 1호)부터 적용되며 Journal Impact Factor™ (JIF)는 2022년 6월 부여되었습니다.
4. 2024년 기준 CIOs IF 지수는 1.86입니다.

국내학술행사

1.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척추 및 관절 연구회 제2회 개원의 연수강좌

- 일정 : 2025년 5월 10일(토)
- 장소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별관 지하1층 로제타홀(오프라인 병행)
- 문의 : Tel. 031-412-5049, E-mail. askmcasos001@kumc.or.kr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견주관절 심포지엄

- 일정 : 2025년 5월 17일(토)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 문의 : Tel. 02-3779-1192, E-mail. cmcos1192@naver.com

3. 대한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 제22회 춘계학술대회

- 일정 : 2025년 5월 25일(일)
- 장소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지하1층 대강당
- 문의 : Tel. 031-846-3671, E-mail. info@ksrl.org

4. 대한골대사학회 SSBH 2025 & 제37차 춘계학술대회

- 일정 : 2025년 5월 29일(목)~31일(토)
- 장소 : 그랜드워커힐서울
- 문의 : Tel. 02-3473-2230, E-mail. ksbmr@skbmr.org

5. 연세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제3회 연세대학교 수부 및 상지 심포지엄

- 일정 : 2025년 6월 8일(일)
- 장소 : 연세대학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 홀
- 문의 : Tel. 02-2228-2180, E-mail. ssumnkgok@yuhs.ac

6. AO Recon Course—Complex Total Hip and Knee Arthroplasty

- 일정 : 2025년 6월 11일(수)~12일(목)
- 장소 :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 문의 : E-mail. aoreconkr@gmail.com

7.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제41차 연례학술대회

- 일정 : 2025년 6월 13일(금)
- 장소 : 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
- 문의 : Tel. 031-726-1985, E-mail. kpos.orthopaedic@gmail.com

8. 대한골절학회 제7회 상지 골절 심포지엄

- 일정 : 2025년 6월 14일(토) 08:50~16:50
- 장소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 문의 : Tel. 031-551-1810

9. 서울의대 정형외과학교실 Seoul Musculoskeletal Oncology Course 2025 - Soft Tissue Tumor

- 일정 : **2025년 7월 6일(일)**
- 장소 :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지하1층 CJ Hall
- 문의 : Tel. 02-2072-2360, E-mail, lovejjang10@snu.ac.kr

10. 대한수부외과학회 2025년 제8회 수부외과 기초 술기 워크숍

- 일정 : **2025년 7월 12일(토)**
-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4층 418호 윤주홍 강의실
- 문의 : Tel. 02-2030-7639

11. 대한미세수술학회 2025년 춘계 미세수술 워크숍

- 일정 : **2025년 7월 13일(일)**
-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5층 실용해부실습실 내 미세수술 실습실
- 문의 : Tel. 010-9475-2338

12. Interhospital Orthopaedic Conference (매월 첫째 수요일 18:30) (3, 5, 7, 9, 11월 매년 5회 개최)

년도	횟수	개최일	병원명
2025년	제163차	5월 28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제164차	7월 2일	광명성애병원
	제165차	9월 3일	이대목동병원
	제166차	11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2026년	제167차	3월 4일	세브란스병원
	제168차	5월 6일	연세사랑병원
	제169차	7월 1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제170차	9월 2일	이대서울병원
	제171차	11월 4일	세란병원
2027년	제172차	3월 3일	아주대학교병원
	제173차	5월 12일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제174차	7월 7일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제175차	9월 1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제176차	11월 3일	광명성애병원

(개최 일정: 3월, 5월, 7월, 9월, 11월 연 5회, 매월 첫째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제163차 개최일의 경우 첫주차 수요일에서 4주차 수요일로 변경

* 제173차 개최일의 경우 첫주차 수요일에서 2주차 수요일로 변경

☎️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02-2228-2180~2181 / E-mail, os@yuhs.ac



모집공고

1. 동아대학교병원 신규 전임 교원 모집

- 분야 및 인원 : 척추
- 문의 : Tel. 010-8543-1961



회원동정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안재성 회원(마라톤정형외과병원) 빙부상
- 박기철 회원(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형외과, 現학회지편집운영위원, 수련교육위원, 국문학회지편집위원, 의료자문심사위원) 모친상



회의실 대관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드립니다. 회의실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학회로 송부하여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 대관 불가일 안내 (■은 예약 완료일입니다.)

❖ 2025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025년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25년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대한정형외과학회 건축기금 모금 관련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회관 건축을 위해 2016년도부터 건축기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모금된 건축기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2018년 2월 13일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특별회비 및 비정액 기부금에 대해서 적용되던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학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근거로 한 경비 비용처리(손금 처리)는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4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번호	성 함	소 속	모금 날짜	입 금 액	누적금액
1	오진록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4월 25일	10,000원	1,060,000원
2	윤용현	인천터미널정형외과	4월 30일	100,000원	1,100,000원
현재 모금액 : 508,480,000원					

▶기부금 고액 기부자 명단

1. 건축기금(단체)

번호	단체명	소 속	기부액
1	서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서울대학교	50,000,000원
2	연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연세대학교	50,000,000원
3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40,000,000원
4	전남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전남대학교	30,000,000원
5	한양대학교 정형외과교실	한양대학교	30,000,000원
6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교실	건국대학교	27,500,000원
7	경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경북대학교	30,000,000원
8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대구파티마병원	15,000,000원
9	전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전북대학교	10,500,000원
10	고려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고려대학교	10,000,000원
11	대한척추중앙학회	대한척추중앙학회	10,000,000원
12	제일정형외과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13	경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경상대학병원	8,000,000원
14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5,000,000원
15	한양대학교 정형외과 동문회(한정회)	한양대학교	5,000,000원

2. 건축기금(개인)

번호	성 함	소 속	기부액
1	박근호 회원	전주고려병원	24,000,000원
2	고용곤 회원	연세사랑병원	10,000,000원
3	김용욱 회원	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	10,000,000원
4	박종호 회원	부산센텀병원	10,000,000원
5	김준우 회원	경북대학교병원	10,000,000원
6	서동원 회원	바른세상병원	10,000,000원
7	송준섭 회원	강남제이에스병원	10,000,000원
8	신규철 회원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9	손부홍 회원	(구)손부홍정형외과의원	10,000,000원
10	김기택 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7,200,000원
11	정영복 자문위원	현대병원	5,000,000원
12	안길영 회원	포항성모병원	1,000,000원

3. 학회지 발전 기금

번호	성 함	소 속	기부액
1	이춘실 교수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20,000,000원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 후 통증 지속 사례



이환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식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남/60대)은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한 사례

[치료 과정]

신청인(남, 60대)은 2021. 9. 15. 낚시배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측 무릎 통증, 부종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X-ray, MRI 검사를 하고 후방십자인대파열,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 하 1차로 관절경하 후방십자인대 제거술(resection), 반월상연골 변연절제술을 받음.

9. 24. 2차로 관절경하 후방십자인대 재건술(reconstruction)을 받은 후 입원 치료하고 10. 26. 퇴원하였으며 2022. 2. 22.까지 외래 추시 관찰함. 2022. 9. 8.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x-ray 검사, 관절천자 치료 및 경구약 처방을 받았고, 9. 22., 29.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진료를 받음. 11. 3. 우측 무릎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과 X-ray 검사를 받았고 11. 7. □□□□병원에서 우측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음.

11. 9. ■■병원에서 MRI, CT 후 후방십자인대 중등도 이상의 동요관절 및 관절 불안정성으로 인한 관절연골 손상과 전방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및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11. 10.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11. 21. 퇴원함. ■■병원에서 추시관찰을 지속하다 2023. 2. 1. - 2. 9. 우측 무릎 혈관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3. 21. - 4. 1. □□□□병원에서도 무릎 부종, 통증으로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음.

[분쟁 쟁점]

환자측(신청인) : 피신청인 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파열로 두 번 수술을 받았으나 술기 부족으로 통증이 계속되었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 위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병원측(피신청인) : 신청인이 처음 내원 당시 MRI 검사에서 후방십자인대파열과 반월상연골 손상이 확인되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까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내원 당일 우측 관절내시경 확인 후 제거술(resection)을 시행하였음. 이후 2차 수술까지 적절히 마치고 증상 및 관절운동 범위가 회복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경과관찰 시 진찰 상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처음 내원 당시부터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므로 신청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함.

감정의견

가. 과실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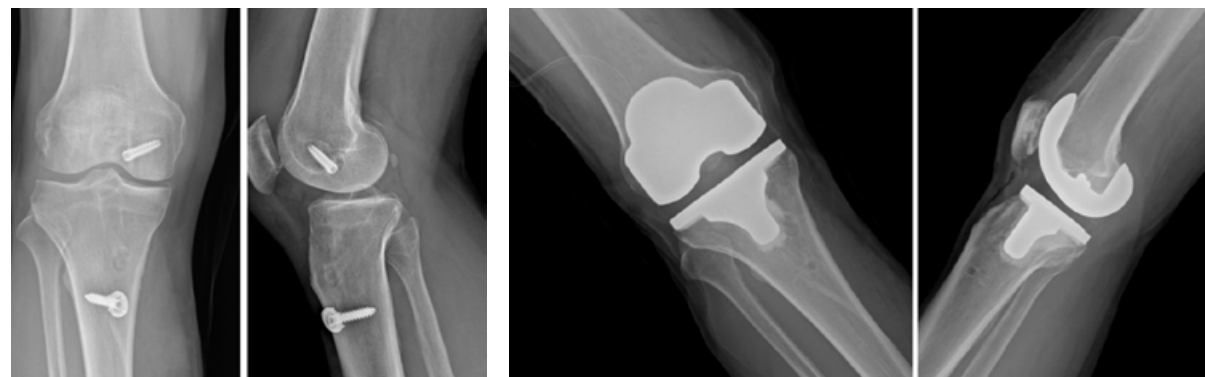
수술의 적응증 및 1차, 2차 수술의 적절성

신청인은 우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관절 천자로 55 cc의 혈액을 뽑았으며 당일 시행한 x-ray에서는 경도의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었으나(그림 1 - A, B), MRI 상 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관찰됨(그림 2 - A, B : 화살표). 후방십자인대는 활액막으로 싸여있으며 혈액 공급이 원활하므로 파열 시 나이나 인대 손상의 정도를 고려하고 젊고 활동적인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독 파열 시에는 교과서적으로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이라고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1).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9. 15. 관절경을 이용하여 후방십자인대를 제거하는 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9. 15. 수술 기록 상 반월상 연골은 내측과 외측 모두 파열 소견이 없었으므로 후방십자인대 단독 파열로 진단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 경우 후방십자인대 제거술을 시행한 것은 후방십자인대 단독 파열의 교과서적 치료 원칙(비수술적 치료)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차 수술은 9. 15. 후방십자인대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시행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적절하지 않은 1차 수술에 따른 2차 수술로 생각할 수 있음.



▲ 그림 1- A, B

▲ 그림 2- A, B



▲ 그림 3- A, B

▲ 그림 4- A, B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입원기간의 적절성 및 퇴원 후 통증 호소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 후 입원 기간 중 피신청인은 수술 경과를 설명하고 보조기를 착용하여 체중이 부하하지 않도록 교육하였으며 이후 목발 사용과 물리치료를 격려하고 10. 26. 퇴원함. 퇴원 후 주기적으로 외래 내원하여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2022. 9. 8. 방문 시 x-ray에서는 특이 소견 없었으나(그림 3 - A, B) 부종이 있어 관절천자를 시행하였음. 9. 22., 9. 29. 방문 시 MRI를 권유하였으나 촬영하지 않음.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TELOS를 이용한 불안정성 영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추시 관찰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진찰 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 할 수 없음. 이후 신청인은 통증과 걷기 불편감으로 2022. 11. 3. 타 병원에 방문하여 시행한 진찰 상 관절운동 제한과 슬관절 불안정성이 감지되었음. 또한 후방 불안정성 stress x-ray 상 우측 슬관절의 후방 불안정성 소견이 있으며 CT,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부분파열과 경도의 골관절염이 관찰되어 11. 9. 입원하여 11. 10.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함(그림 4 - A, B). 그

러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입원 기간 중 치료, 교육과 퇴원 후 약 1년간 추시 관찰 기간 중 부적절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음.

1차, 2차 수술전 설명에 대한 사실관계

1차 수술동의서는 2021. 9. 15. 작성하였음. 수술명은 '관절내시경'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후방십자인대 제거술'을 시행하여 수술명과 실제 수술은 일치하지 않으며 합병증 항목도 설명한 내용이 부실하다고 사료됨. 2차 수술동의서는 같은 양식으로 9. 24. 작성하였음. 병명, 수술명이 기재되었고 수술 후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합병증 항목은 출혈과 감염만 기재되어 있어 설명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됨. 합병증에 관하여는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전체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동의서 양식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기하는 표준동의서 양식과 비교하여 내용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1, 2차 동의서 모두 보호자(배우자)의 자필서명은 확인할 수 있으나 성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가 서명해야 하며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동의서에 명시하여야 함(참고문헌 2).

나. 인과관계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동요 및 심한 관절의 불안정성의 원인

신청인의 2022. 11. 3. 후방 stress x-ray 상 슬관절의 후방 불안정성이 관찰됨. 이는 후방십자인대 장력(tension)의 부족에 따른 슬관절 전, 후방십자인대 동요 및 심한 관절의 불안정성이 원인으로 사료 됨.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된 원인

우측 슬관절 전, 후방십자인대 동요, 심한 관절의 불안정성 및 퇴행성 관절염의 악화가 신청인이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게 된 원인으로 사료됨.

다. 종합소견

본 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1) 피신청인 병원의 1, 2차 수술의 적응증과 술기 미흡으로 3차 수술을 받게 되었다. (2) 1, 2차 수술 후 추시 관찰이 부적절하였다. 이에 대한 감정부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1차 수술의 적응증과 술기는 후방십자인대 단독 파열의 교과서적 치료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2차 수술은 부적절한 1차 수술의 결과에 따른 수술이었음. (2)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1, 2차 수술 후 외래 추시 기간 중 불안정성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뚜렷하게 부적절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음. 추가로 1, 2차 수술의 수술 전 설명은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사료됨.

[조정 결과]

본 건은 신청취하 하였음.

[참고 문헌]

- 대한정형외과학회, 최신의학사, 정형외과학 8판, 2020, p. 1363- 1365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기준 6.5 조사항목 1,2

[예방 Tip]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단독 파열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가 권유되며 재건술은 건열골절 전위로 인한 불안정성, 젊고 활동성의 기대치가 높을 때, 충분한 재활에도 통증과 신체장애가 있을 때, 동반 인대 손상 특히 후외측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1).

수술/시술 동의서 상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내용과 합병증에 관하여는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서명은 환자 본인이 시행하며 미성년자나 고령의 경우 보호자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리 서명의 이유를 명시해야 함(참고문헌 2). 본 건의 경우 일차 치료(후방십자인대 제거술)가 교과서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임. 동의서 작성 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표준 양식(참고문헌 2)을 참고하여 자세히 작성하는 것을 권유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한정형외과학회와 공동으로 정형외과 의료분쟁 감정사례 중 40건을 선정하여 '2019-2024 의료중재원 감정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해당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위치 :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予齒去角

(여치거각: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짐승에게는 뿔을 주지 않았다)

‘무릇 하늘이 나누어 줄 때 이빨을 주었으면 그 짐승에게 뿔은 주지 않았고 날개를 주었으면 발은 둘밖에 주지 않았으니 (予之齒者去其角, 傅其翼者兩其足:여지치자거기각 부기익자양기족), 이는 큰 것을 받은 자는 적은 것을 다시 얻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옛적에 봉록을 주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고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할 수 없게 했으니 이 또한 큰 이익을 얻으면 작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 것이니 하늘의 뜻과 같았습니다. 큰 것을 받고도 작은 것을 취하게 하는 일은 하늘도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먹고 입을 것이 모자란 백성의 원성이 자자한 까닭입니다. 몸은 총애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고, 집안은 따뜻하며 후한 녹봉을 받아먹는데, 부귀한 밀천과 힘을 이용하여 백성과 더불어 아래에서 이익을 다룬다면, 백성이 어떻게 그와 겨룰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날로 깎이고 달로 움츠러들어서 크게 궁색해집니다. 부자는 사치가 넘쳐흐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궁색하고 급하며 근심하고 고달파져서 백성들은 살기를 즐기지를 아니하는데 어찌 죄짓는 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벌이 많아지는 까닭이며, 간사한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봉록을 받는 집에서 봉록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고 수공업이나 장사같은 백성이 할 일을 빼앗지 못하게 한 연후에야 재물이 천하에 고루 나누어져 백성의 살림이 풍족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늘의 이치와 옛적 성군이 나라를 다스린 도에 맞게 되니 천자는 응당 이런 이치와 도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하고 대부는 마땅히 그 법과 제도를 집행해야 합니다. 公儀子(공의자)가 魯(노)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부인이 집에서 비단을 짜는 것을 보고 노하여 그 부인을 쫓아버렸고 집에서 차린 밥상에 아욱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자신의 밭에 키우던 아욱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미 봉록을 받고 있는데 채소를 키우는 농부나 길쌈하는 여자의 이익을 빼앗아야 하겠느냐 라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옛적의 현인과 군자가 벼슬에 있을 때는 모두 공의자처럼 행했으므로 아래 백성들은 그 덕행을 높이 여기며 가르침에 따랐으니 백성이 그 청렴함에 교화되어 저속한 짓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자와 대부란 사람은 아래에 있는 백성이 보고 본받으려 하고, 멀리 있는 사방에서 안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가까이 있는 자는 그를 모방하며, 멀리 있는 자는 바라보고 그를 본받으려 하는데, 어찌하여 현명한 사람의 지위에 있으면서 서민의 행동을 합니까? 무릇 급히 재물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항상 궁핍해질까를 걱정하는 것이니 庶人(서인)의 뜻이며, 급히 仁義(인의)를 구하는 것은 항상 백성들을 교화시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니, 대부의 뜻입니다. 周易(주역)에는 '지고서 수레를 타면 도적이 이른다'(負且乘 致寇至:부차승 치구지, 수레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타는 것인데 소인이 하는 등짐을 지고서 수레에 앉아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여겨 강도가 달려든다는 이야기다)고 하였습니다. 수레를 타는 사람은 군자의 지위이고 짐을 짊어지는 사

람은 소인의 일이니, 이것은 군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소인의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환란과 화가 반드시 이를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군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군자의 행동을 감당한다면 공의자가 노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한 일을 버리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한서 동중서전)

여기서 공직자의 모범으로 인용한 노나라 재상 공의자는 사마천의 史記(사기) 순리열전에 나오는 公儀休(공의휴)다. 공의휴는 법을 지키고 도리를 따라 함부로 변경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관리들이 저절로 올바르게 되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일도 없었고(使食祿者 不得與下民爭利) 많은 봉록을 받는 사람이 뇌물을 받는 일도 없었다. 어떤 빈객이 공의휴에게 생선을 보내왔으나 받지 않았다. 다른 빈객이 말했다. ‘상군께서 생선을 좋아하신다는 말을 듣고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받지 않습니까?’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요. 지금 나는 재상을 지내고 있으니, 스스로 생선을 살 수 있소. 그런데 지금 생선을 받고 벼슬자리에서 쫓겨난다면, 누가 다시 나에게 생선을 보내 주겠소? 그래서 받지 않은 것이요.’ 어느 날 공의휴는 자기 집 채소밭에서 기른 아욱을 먹어보니 맛이 대단히 좋았다. 그러자 그는 채소밭의 아욱을 다 뽑아버렸다. 또 자기 집에서 짜는 베가 훌륭한 것을 보고는 당장 그 베 짜는 여자를 돌아가게 하고 그 베틀을 불태워 버리고 이렇게 말했다(拔葵去織:밭규거직). ‘사서 입어야 할 사람이 사주지 않으면 농부와 공녀들은 그들이 생산한 물품을 팔 곳이 없게 되어 곤궁하게 되지 않겠는가(欲令農士工女 安所鬻基貨乎)?’

予之齒者去其角, 傅其翼者兩其足(여지치자거기각 부기익자양기족) 즉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짐승에게는 뿔을 주지 않았고 날개가 있는 짐승에게는 두 개의 발만 주었다’는 줄여서 予齒去角 傅翼兩足 (여치거각 부익양족)이라고 하며 班固(반고)의 漢書(한서) 董仲舒(동중서)전에 나오는 글이다. 이 글은 그 후 전통적인 유가적인 공직자의 자세로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잡게 하였다. 동중서(B.C 179 ~ B.C 104)는 廣川郡(광천군) 사람이다. 春秋(춘추)를 연구하여 景帝(경제)때 박사가 되었다. 집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휘장을 깊이 내리 쳐놓고 강독했는데, 제자들은 입문한 순서대로 수업했기 때문에 어떤 제자는 스승인 동중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동중서는 3년 동안 자신의 방에서 나와 정원과 채마밭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는 출입할 때에도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였고, 예법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아서 학생들은 모두 스승의 예로써 그를 존경했다. 무제가 즉위한 뒤에 그는 江都(강도)의 國相(국상)으로 임명되었다. 武帝(무제) 때 儒敎(유교)에 의한 사상통일을 주장하여 유학의 가르침이 한나라의 통치 이념이 되는 기초를 만들었다.

한무제는 즉위한 뒤에 덕행과 재능에 뛰어난 인재로 유학에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백 명에 가까운 인재를 뽑았다. ‘짐은 先帝(선제)의 지극히 존귀한 자리와 뛰어난 덕을 계승하여 이 자리를 무궁하게 전하고 그 덕을 무던히 베풀고자 한다. 중임을 맡아 책임이 무거운 까닭에 새벽부터 밤까지 편안할 겨를 없이 만사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숙고하지만 모자라는 점이 있을까 크게 걱정이 된다. 그리하여 사방의 뛰어난 인재를 널리 초빙하고자 각 군의 태수와 제후왕과 열후에게 덕행과 재능이 뛰어나고 순결하고 고상한 덕을 구양하며 널리 학문을 닦은 선비를 공정하게 선발하게 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大道(대도)의 요점과 높고 정확한 의견을 듣고자 했다.’ 라고 하며 또 ‘짐은 풍속을 바르게 하여 영이 통하게 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고도 악한 마음을 고쳐먹게 하여 백성이 화락하게 살도록 널리 정사를 베풀고 싶다. 어떻게 수양하고 어떻게 경계해야 하늘에서 甘露(감로)가 내려와 오곡이 잘 여물고 은덕이 사해를 기름지게 하며 은혜가 초목에 미칠 수 있는가? 또 해와 달과 별이 온전하게 궤도를 돌고 추위와 더위가 순조롭게 바뀌어 들 수 있는가? 그래서 하늘의 보우를 받고 조상의 혼령이 제수를 흠향하며 은덕이 넘쳐 나라밖까지 퍼지게 하고 만물에 미치게 할 수 있는가?’라고 策問(책문)조서를 내리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심사숙고하여 적어 보내면 다 친히 열람하겠다’고 하였다.

그중 동중서의 對策問(대책문)이 뛰어나다고 여기고 바로 동중서에게 책문조서를 다시 내렸다. 동중서는 고대로부터 주나라를 거쳐 진나라에 이르는 여러 왕조의 변천과 흥망의 원인을 비교하였다. ‘그런데 신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옛적의 천하가 바로 오늘의 천하이고 오늘의 천하가 또한 옛적의 천하라서 천하는 같은 천하인데 옛적에는 성세를 이루어 상하가 화목하고 습속이 뛰어나게 훌륭했으며 영을 내리지 않아도 좋은 일이 시행되고 금지하지 않아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관리들은 거짓되거나 정당하지 않은 짓을 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도적이 되지 않았으니 옥은 텅 비고 제왕의 은덕이 초목을 적시며 덕택은 나라 안에 두루 미쳤고...옛적의 기준으로 지금을 평하면 서로 다르기가 어찌하여 이렇게도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기에 이렇게 쇠퇴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옛적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일지 아니면 하늘의 이치를 어

졌기 때문일지 옛적 성군의 궤적을 고찰하고 하늘의 이치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옛적에는 교화를 담당하는 관리를 두어 덕행과 선행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일에 힘썼으니 백성이 크게 교화된 뒤에는 천하에 한 사람의 옥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세에 이르러 그 제도를 폐지하고 교화를 책임지는 관리를 두지 않아 백성을 교화하지 않았으나 백성이 의를 행하던 것을 버리고 재물과 이익만을 좇게 되므로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일이 많이 일어나 한해에 발생하는 옥사만도 수천 건을 넘어 수만 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옛적에 시행하는 바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 때문에 春秋(춘추)에서 옛날의 법을 고치는 것을 건책했습니다. 하늘의 수(영)을 命(명)이라고 하는데 명은 聖人(성인)이 아니면 행할 수 없고 사람의 바탕을 性(성)이라고 이르는데 성은 教化(교화)가 아니면 제대로 이룰 수 없으며 사람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情(정)이라고 하는데 정은 법과 제도가 아니면 절제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왕은 위로 삼가 하늘의 뜻을 계승하여 그 명에 순종하고 아래로 고명한 가르침으로 애써 백성을 교화하여 본성을 완성시키며 마땅한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우고 상하의 질서가 구별되게 함으로써 탐욕을 막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시행하면 나라의 근본이 서게 됩니다' 또 太學(태학)을 세워 능력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통해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자의 유학만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고 통치를 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진나라는 법가사상의 형명학으로 엄격한 법치와 그에 따른 예외 없는 형벌로 나라를 다스려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고 그 강한 군대로 진시황은 6국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막강한 진나라가 진시황 사후 15년 뒤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다. 한나라 文帝(문제)와 景帝(경제)의 안정된 치세 뒤에 武帝(무제)가 즉위하였다. 무제는 황제가 된 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100명의 인재를 뽑아 그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요체에 대하여 질문하였고(策問:책문) 그 답을 적은 글을 일일이 다 읽고 그중 동중서의 對策問(대책문)을 읽은 뒤에 뛰어나다고 여기고 바로 동중서에게 책문 조서를 다시 내렸다. 또 동중서의 대책문을 읽은 무제는 3번째 책문을 다시 내렸고 동중서는 그에 대한 대책문을 다시 써서 올렸다. 그의 주장은 '신의 어리석은 견해는 이렇습니다. 禮樂射御書數의 六藝 (예 악 사 어 서 수: 육예)의 가르침과 孔子(공자)의 학술이 아닌 것은 모두 그 道(도)를 끊으시어 나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야 치우치거나 옳지 않은 학설이 없어지며 그런 후에야 통치 기강을 통일할 수 있고 법률과 제도가 밝아지며 백성들은 쫓을 바를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자의 가르침만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학문이므로 유학만을 존중하고 나머지 제자백가의 사상은 폐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罷黜百家 獨尊儒術 : 파출백가 독존유술) 무제는 이를 받아들여 유학을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우리는 흔히 '두 개의 머리는 하나보다 낫다'라는 말을 듣곤 한다. 이 영어 속담은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이라고 표현된다. 즉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두 사람이 함께 고민하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혼자서는 생각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둘 이상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세 명의 바보가 모이면 諸葛亮(제갈량)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도 있다. 통치자도 여러 등급이 존재한다. 최하 등급의 통치자는 자신의 재능만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중간 등급의 통치자는 자신의 힘 외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린다.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의 통치자는 자신의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혜를 수렴할 줄 안다. 바보 세 명이 한 명의 제갈량보다 낫다. 즉,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우월하다는 뜻이다. 이를 아는 한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취합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을 세웠다.

중국 역사상 현명한 황제로 알려진 한무제는 황제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현명하다고 이름난 학자 100사람의 의견을 구했고 그 의견에 대한 답인 대책문을 일일이 다 숙고하며 읽어본 뒤 그중 뛰어났다고 생각한 동중서에게 여러 번 의견을 구해 드디어 유학을 나라를 안정시키는 학문으로 받아들여 그 후 한나라가 400년을 유지하는 기초를 쌓았다. 한무제의 겸손한 현명함이 유가의 가르침을 한나라의 국가 이념으로 삼게 하였고 지금의 우리나라에 까지 영향을 미쳐 법보다는 인성의 교육이 앞선다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하였다. 특히 동중서가 주장한 공직자의 자세인 予齒去角(여치거각)은 금전만능에 젖은 우리나라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출간소식

1. 학생교과서 [근골격의학] 출간안내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필수정형외과학” 초판이 출간된 지도 벌써 19년이 지났으며 제2판이 출간된 지도 7년이 지났습니다. “필수정형외과학”이 그동안 정형외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형외과학에는 비단 수술을 위주로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척추와 사지의 골다공증, 류마티스 질환, 퇴행성 질환, 감염성 질환 같은 다양한 내과적 치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의 명칭을 “근골격 의학” “Textbook of Musculoskeletal Medicine”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학이 여러 방면에서 발달하는 가운데 정형외과학의 발달도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의공학과 연관된 재료학과 각종 기기의 개발, 내시경수술 등 새로운 수술 기법의 발전은 실로 놀라운 것이며, 현재에도 끊임없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빠른 발전을 따라잡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골격 의학”은 이러한 학문의 발전을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정형외과학 교과서를 한두 사람이 모두 기술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특히 담당하는 분야가 전문화와 세분화가 되어 있는 요즘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전국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님들께 전공 분야별로 집필을 의뢰하여 이를 편집하여 2년 동안의 꾸준한 준비를 거쳐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골격 의학”이 외국의 우수한 교과서들에 비해 손색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더욱 보완과 개선을 하여 보다 더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독자들의 질책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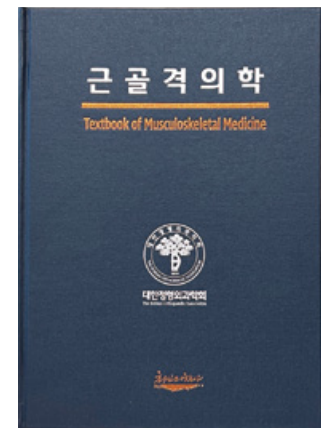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원고를 써 주신 여러 저자들과 수정과 보완을 하여 주신 대한정형외과학회 편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원고를 정리한 편찬위원회 간사인 이화대학교 유재두 교수와 최고의 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최신의학사 엄철 사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편찬위원장 이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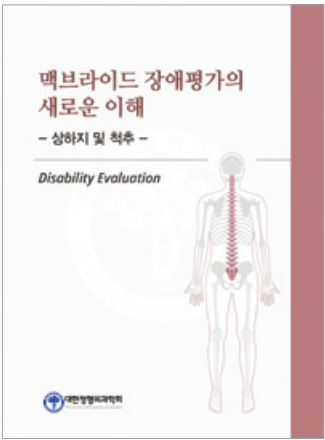
■ 주요분야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근골격계 영상의학, 재활, 골관절의 감염, 관절염, 신경, 근육 및 혈관 질환, 척추 질환, 건관절, 수부 및 주관절, 고관절 병변, 슬관절 병변, 족근관절 및 족부병변, 선천성 및 발달성 소아질환, 전신적 질환, 외상, 정형외과적 치료원칙, 종양, 근골격계 통증관리, 노인의학

- 구입 :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
- 가격 : 80,000원



2.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상하지 및 척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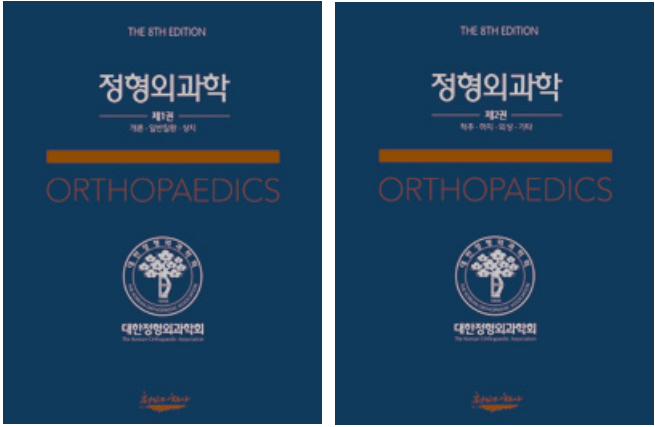
- 판매처 : 대한정형외과학회 (Tel. 02-780-2765, Fax. 02-780-2767, E-mail. ortho5@koa.or.kr)
- 가격 : 70,000원 (회원가 3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 관련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2020년 10월에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장애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상 소견 외에도 사회적 여러 여건을 반영해야 하므로 단지 의학적 기준만으로 정답을 제시할 수 없으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절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 판정 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에 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 안과 너무 차이가 크면 사회적 저항 또한 증가함으로 개선은 점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학회에서 발간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는 현재 법원을 비롯한 많은 배상 관련자들이 관심을 갖고, 인용하는 경우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도 장애인단체 발부 시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 2020년에 발간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에 의하면…….” 과 같은 형식으로 인용 근거를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애평가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주어진 사회적 소명입니다. 회원분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학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해 주신 내용은 장애위원회에서 논의 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다음번 개정판 발간 시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학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장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여러 정형외과 회원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주실 곳 : 대한정형외과학회 E-MAIL: ortho@koa.or.kr

3. 제8판 개정판 정형외과학 교과서 발간



- 구입 :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
- 가격 : 360,000원

제8판은 정형외과학 전문적인 최신 지견을 담고 도표와 증례 또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제7판에 비해 20% 이상 증가된 218페이지로 제8판 정형외과학은 전공의 및 근골격학을 공부하는 의료인들에게 풍성하고 업데이트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정형외과학 용어집 제3판

- 가 격 : 50,000원
- 구입문의 : ortho@koa.or.kr



5. '장애판정기준' - 사지및척추분야 제2판 -2012년 발간

- 가 격 : 회원 15,000원 / 비회원 30,000원
- 구입문의 : ortho@koa.or.kr



대한정형외과학회 캠페인 안내

| 대한정형외과학회 홍보 슬로건 |

| 7가지 생활수칙 캠페인 포스터 |

| 허위진단서 근절 캠페인 포스터 |



홍보슬로건과 캠페인 포스터가 필요하신 분은
학회 이메일(ortho@koa.or.kr)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환별 팜플렛 안내



팜플렛 제작 중단 및 할인 판매 안내

-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질환별 팜플렛 총 29종을 제작하여 회원 여러분께 원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원가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00부당 20,000원(면세가)으로 단가가 인상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팜플렛 구매 신청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소식지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학회 이메일(ortho@koa.or.kr) 또는 팩스(02-780-276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구매 수량은 종류별 100부 단위로 판매합니다.
- 입금 계좌 정보 : KB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 *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팜플렛은 50% 할인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 ※ 질환별 팜플렛은 현재 제작된 재고 소진 시 판매중단 예정입니다. 팜플렛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eyond the Best
조인스®

연골보호효과 확인^{1,i}

장기투여효과 확인^{1,2,ii}

안전성 프로파일 확인^{1,2}

제품요약정보

전문약품

【제품명】 조인스정200mg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이 약 1정 중 조인스정 유효성분: 위령선-팔루근-하이드로코르티손(40-1)(별규) ...200mg 【효능·효과】 골관절염(퇴행관절질환),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 완화 【용법·용량】 성인 : 1회 1정을 1일 3회 경구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감염상태 또는 감염의 원인이 있는 환자(감염에 대한 자체 저항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감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처치를 취해야 한다.)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후략) 【제조사】 에스케이케미칼(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49 【판매자】 에스케이케미칼(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2011. 3. 21. 개정
※처방하시기 전 제품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최신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Joong Il Kim et al. Efficacy of JOINS on Cartilage Protection in Knee Osteoarthritis: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knee surg relat res, 2017 sep 1;29(3):217-224. 2, 조인스정 의약품 재심사 보고서 (2001.7.10~2005.7.9), Data on file SK 케미칼, [Updated 2005.10.07] 3, 조인스정 허가정보, 의약품안전나라 [Cited 2023.01.20] Available from: https://nedrug.mfds.go.kr/

i) [조인스정의 4상 임상연구] 1년(시험 연장 참여 동의자의 경우 2년)의 RCT 연구에서 무릎 골관절염 환자 76명을 대상으로 MRI를 이용하여 조인스정과 위약의 연골보호효과를 비교하였음.

ii) 조인스정의 4상 임상 결과 상 2년 장기투여 대상자를, 4년간의 시판후 조사결과 상 6개월 이상 장기투여(184명, 전체의 3.09%) 대상자 포함하였음.

근골격계질환

Better option Better relief

신바로® / 펠루비® / 아티풀® / 보니센원스® / 테로사®

